

北漢山の 오케스트라

張伯逸

I

저 유명한 이태백의 시에 「산중문답(山中問答)」이 보인다. 속세를 털고 자연으로 돌아가 더불어 융합하려는 자연귀의의 마음을 시로 표현한다.

문여하의서벽산(問余何意栖碧山)
 소이부담심자한(笑而不答心自閑)
 도화류수묘연거(桃花流水杳然去)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

내게 왜 청산에 숨어 사는가고 물으면
 웃을 뿐 대답 앓으니 마음 절로 한가하네
 복사꽃 사이로 흐른 물 저 멀리 사라지니
 여기가 별천지라 인간 속세 아니네

젊어선 불끈불끈 솟은 저 산봉우리들을 부지런히도 오르내렸다. 지금도 산행의 뒷꼬리를 따라는 가지만 약동하는 산의 힘은 아무래도 젊은이의 것이다. 이제 산행이 그리워지면 젊은날 가슴에 새겼던 그 산들을 하나하나 다시 끄집어내 그때의 등반을 음미하게 됨은 이 또한 나이 탓이런가. 영국의 알피니스트인 말로리는 “그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산에 오른다” 했지만 나는 그때의 추억을 재생시키기 위해서인가. 산은 올라온 자에게만 정을 준다. 어떤 험난한 곳에서 손을 잡아 이끌어 주며 서로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곳이 산이 아니고 또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산을 오르는 자만이 연인을 사랑하

듯 산을 사랑한다.

시인 단테는 산 위에서 세상 굽어보기를 유일한 낙으로 여겼다. 이를 위해 산을 자주 올랐다. 이에 역사학자 부르크하르트는 ‘등산을 위한 등산’을 한 유럽 최초의 인물이라고 단테를 평한다. 나도 그렇게 평반기를 즐기고 싶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망일 뿐 내 등산이야 기실은 꽃나기가 아닌가. 그러나 공자 말대로 “지자는 물을 즐기고 인자는 산을 즐긴다(知者樂水 仁者樂山)”하듯, “지자는 즐겁게 살고 인자는 장수(知者樂仁者壽)한다.”하듯 자연과 하나가 돼 그렇게 살고 싶음이 또한 내 소원임을 어찌하라.

II

세계 어느 나라에 우리 ‘북한산 국립공원’만큼이나 아름다운 명산을 가진 수도가 또 어디에 있을까. 이웃 일본만 해도 등산로의 바위길은 모래를 밟은듯 위험하기 짝이 없다. 불을 뿜었던 화산의 잔해로 이루어진 산이어서일까. 일본에서 화산 잔해의 모래바위를 밟다가 우리의 탄탄한 등산로인 바위길을 밟으면 꼭 안방을 건듯 보행의 자유로움에서 등산의 묘미를 만끽한다. 내가 아는 일본의 알피니스트들은 한국에서의 등반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그 보행의 자유로움을 즐기면서 백운대를 중심으로 인수봉, 만경대, 노적봉을 거쳐 북쪽은 상장봉(上將峰), 남쪽으로는 석가봉, 보현봉, 형제봉, 문수봉등이 솟고, 다시 문수봉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나한봉, 증봉(甕峰), 의상봉(義湘峰)의 줄기가 힘

차다. 이 줄기는 백운대 서쪽 줄기인 염초봉, 원효봉 줄기와 대서문의 수구에서 만난다. 이들 타원형의 능선을 따라 쌓여진 성이 바로 북한산 성(약 8km)이다. 손에 잡힐듯 비봉은 문수봉에서 또 하나 서남쪽으로 뻗은 줄기에 솟아 있다. 특히 보현봉은 남쪽으로 두 줄기를 뻗었다. 그중 남동쪽으로 뻗은 줄기가 형제봉, 구준봉(狗遵峰)을 거쳐 북악산으로 잇는다.

계곡 또한 계절 따라 얼굴빛을 바꾸면 나그네에게 주는 색정도 달리한다. 저 산야와 계곡이 갖는 화장의 아름다움이 있어 이 강산을 수려강산이라 하는가. 정릉계곡, 우이동계곡, 육모정계곡, 세검정계곡, 진관사계곡, 산성계곡 등 계곡의 아름다움은 자연의 섭리와 조화로 이른 계절의 미학을 토른 하나로 한시간 내에 음미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서울은 행복하다. 산자락과 계곡 하부로 이어지는 부스럼 같은 주택과 놀이터로 훼손의 아픔이 없지 않지만 그건 그것대로 생활의 실상을 반영해 주고 있음이 아닌가. 그럼에 북한산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활의 궁핍과 아픔이 하나로 융합되는 삶의 터전이다.

내가 저 북한산, 특히 보현봉과 형제봉을 지적에 두고 조식을 함께 했음도 어언 20년이 넘는다. 보현봉과 형제봉 남쪽 기슭의 북악터널 입구에 자리잡은 「국민대학교」와 인연을 같이 하면서부터이다. 서울에서 보현봉과 형제봉의 저 아릿다운 전경을 한눈에 보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 교사 2호관인 15층 북쪽 연구실이라고 자부한다. 계절 따라 산빛을 달리하면 나는 그로부터 인생을 읽는 사색의 계절병을 앓기 시작한다. 계절이 바뀌면 인생을 바라보는 사색의 눈빛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는 사색의 길잡이인가.

우리의 산천은 철따라 천의(天衣)를 달리하는 산하이다. 그점에서 천의(天意)에 따른 천의(天衣)의 산하요, 그로 인생을 관조함에 춘추추동

을 좇아 천의무봉(天衣無縫)의 경지에까지 들게 한다. 바이런은 그의 「차일드 해럴드의 순례」에서 ‘높은 산맥은 정서요, 인간 도시의 소음은 고통이다’고 말한다.

그렇다, 이를 전제한다면 산정(山精)의 정서에 묻혀 도시의 고통의 소음을 들으면서 인생을 음미할 수 있는 산으로는 북한산이 으뜸이 아닐까. 그래서 북한산은 인생을 밑바닥에서 꿰뚫게 하고 그로써 생명의 약동을 생활의 방편으로 용솨음치게 하는 그런 산이다.

서울의 계절은 북한산의 산빛에서 열린다. 나목(裸木)들의 쓸쓸한 공산(空山)이 푸릇푸릇 연록색으로 물들면 봄은 이내 손에 잡힌다. 여기에 진달래와 산벚꽃이 피면 산은 온통 연록과 연분홍이 조화돼 오케스트라의 봄으로 넘실거린다. 산은 마치 물감을 뿌려 놓은듯 색감의 율동으로 자연의 예술을 수 놓는다. 그것은 산이라기보다 수채화로 그린 한 폭의 아름다운 색채의 바다다. 그 바다에 우뚝 솟은 소나무는 어찌보면 범선의 돛대와도 같다. 그 돛대는 출항의 장도와 희망을 상징하는 푸른 소나무의 돛대이다. 강의가 끝난 오후 홀로 학교 뒷산인 보현봉의 치마자락을 거닐다 보면 나는 산을 산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색채의 바다를 헤엄치며 있는지 자연과 함께 막걸리로 산중문답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하산의 때를 잃는다. 이렇듯 산에 취하고 봄에 취한다. 이것이 계절과 접하는 나의 연중행사이다.

이런 봄이 지나면 여름이 성큼 다가온다. 연록의 나무는 어느새 짙은 녹음으로 갈아입고 옷깃을 여민다. 산은 금세 노도의 바다로 변할 듯이 바람따라 푸른 녹음이 파도가 되어 썰물에 밀물의 율동으로 출렁거린다. 장엄한 광경이다. 이를 보고 있노라면 나도 어느새 파도의 율동에 실려 출렁거린다. 이것이 어찌 자연과 더불어 자생자화하는 초극에의 경지가 아니라 할까.

자리를 털고 일어나 어슬렁 어슬렁 연구실 뒷산길로 빠지면 「삼봉사」에선 극락영생을 비

는 목탁소리가 발길을 잡는다. 그렇다, 들려오는 목탁소리에 마음을 비우면 인생이란 한낱 뜬 구름이요 한 줌의 흙이 아닌가. 문득 소식(蘇軾)의 「人間無常詩」가 떠오른다.

인간도처여하사(人間到處如何似)
 응사비홍답설니(應似飛鴻踏雪泥)
 니상우연유지조(泥上偶然留指爪)
 홍비나복계동서(鴻飛那復計東西)

사람 오가는 곳 그 무엇 같을까
 마치 나는 기러기 눈 진흙 밟는 것 같으니
 진흙 위에 우연히 남긴 발자욱 얼마나 가라
 기러기 날고 보면 가는 곳 동서를 누가 알까

인생은 하나의 역려(逆旅)요, 거기 지새고 가는 한개의 나그네다. 석화(石火) 같이 왔다 전광(電光) 같이 가는 인생이런만 그래도 미련이 있어 서로 짚고 헐고 새암하는가. 옛날 사람은 이를 달팽이뿔 위(蝸牛角上)의 싸움이라 하던가. 「삼봉사」의 목탁소리를 뒤로 들으며 계속 위로 오르면 어느새 「영불사」가 눈에 잡힌다. 들려오는 염불소리는 사람은 태어나 고생하다 죽는 한낱 초로 인생임을 깨우친다. 사람 몸뚱이는 저 바위 틈에 뿌리 박은 풀잎이요, 목숨은 풀잎에 영긴 한 방울 이슬이다. 천세에 저토록 공명을 날리던 역발산도 항우도 오강(烏江)의 이슬이요, 청담아연으로 물외(勿外)에 놀던 죽림 칠현도 외롭고 흔적없는 한방울 이슬이 아니던가. ‘춘풍추우화월석(春風秋雨花月夕)에 단원장 취불환성(但願長醉不還醒)하던 이백도 한방울 강물로 돌아가지 않았던가. 그 깨우침이 부처와 만나는 순간이 아닌가. 부처가 따로 있음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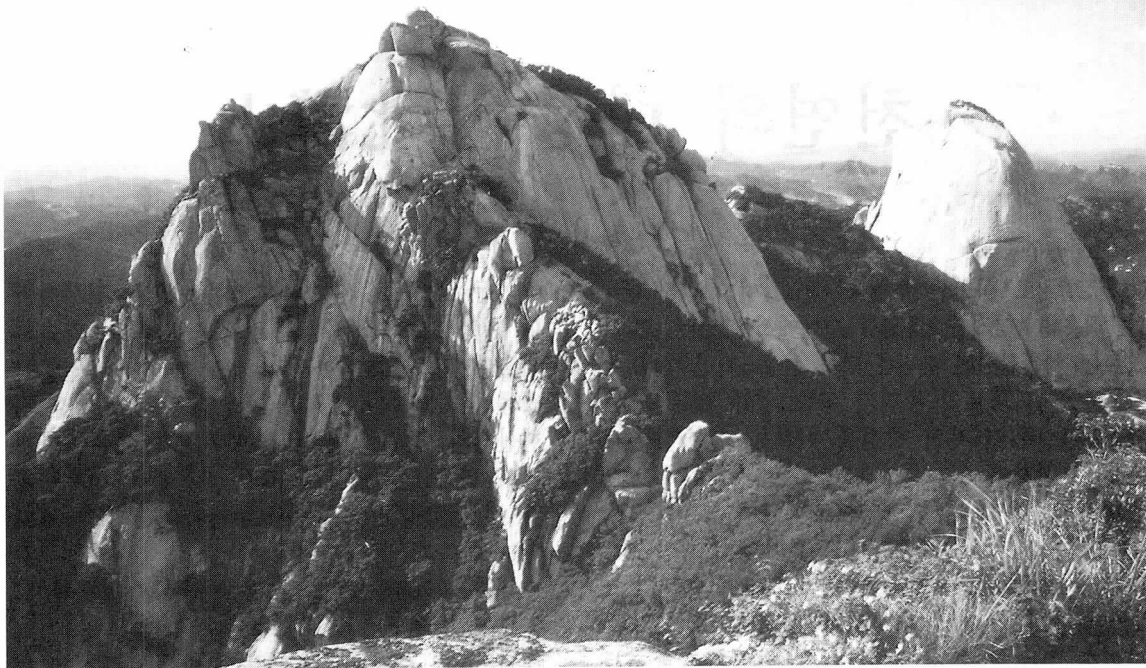
그러나 한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 가더라도 내가 다시 되돌아 갈 곳은 나의 연구실이다. 연구와 가르침이 내 본분이요 사명이라면 나는 다시 이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 작업이 우거진 8월 녹음처럼 왕성하기를 염원하고, 그로부터의

삶의 보람이기를 바란다.

가을이 오면 북한산의 보현봉과 형제봉은 단풍으로 물들이는 변신의 작업에 열중한다. 색색의 단풍은 10월 말경에 절정에 이르되 바람에 날려 쓸쓸히 굴러가는 낙엽에서 우리는 인생의 무상과 허무를 씹는다. 정처없이 흘러가던 처량한 그 얼굴들이 바로 우리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었음이 아닌가. 그토록 화려했던 녹음의 위용을 어디다 두고 외롭게 굴러가는 신세가 됐을까. 인생의 무상을 되씹거니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님을 끄덕이게 한다. 그래서 단풍이 낙엽돼 굴러가는 시간은 무상을 교시하는 시간이요, 나로써 그 무상의 실상을 보는 시간이다. 그점에서 낙엽은 내 분신이 아닌가.

삶에 관한 물음은 보현봉과 형제봉이 겨울산으로 바뀌지면서 더욱 해답을 독촉한다. 낙엽이 지면 어느새 찬바람이 옷깃에 와 춥다. 그 나상(裸像)의 공산(空山)에 눈이 쌓이면 산은 백설의 향연이다. 북한산, 특히 보현봉과 형제봉에 백설이 내리면 누가 저 산을 일러 청정심(淸淨心)의 정도가 아니라 할까. 그 정경은 진정 진통과 고뇌로 잠 못 이루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절경이다. 신은 저 절경을 그런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었다. 그렇다, 우리가 그리워 찾는 청정심이란 바로 저 백설의 지순한 마음이 아닌가.

진정 악행으로 괴로워하는 자는 달빛에 덮힌 저 백설의 북한산을 대좌하고 속죄해야 한다. 양심을 드러내 뉘우칠 때 북한산은 비로소 내할 바가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지시한다. 그것이 내가 할 바 하늘이 정해준 지천명(知天命)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가야 할 회향의 땅은 산이다. 북한산은 춘하추동을 통해 하늘의 뜻을 말없이 보여준다. 연중 계절의 변화로써 위대하고 오묘한 자연의 섭리를 오케스트라로 들려주고 말없는 행동으로써 실천한다. 그래서 공자는 “나는 말이 없고자 한다(余欲無言)”, “하늘이 무엇을 말하리오, 사시(四時)가 행



하며 백물이 생하니 하늘이 무엇을 말하리오(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것이 바로 말없이 북한산이 우주의 섭리와 화합하는 오케스트라이다. 그래서 산은 말없는 그대로 위대한 스승이요, 산행은 그것의 깨우침으로 가는 작업의 시작이다. 그래서 나는 성장해 가는가.

III

묵묵히 우뚝 선 채로 움직임이 없는 북한산, 그 골짜기로 들면 적막한 고요에 마음도 번뇌를 던진다. 밤낮 없이 흐르는 저 골짜기 물은 보기만 해도 저절로 세속의 때를 씻는다. 저토록 깨끗한 마음씨를 맑은 호수 같다 하거니와 노자(老子)는 익으면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겸허’의 미덕을 언제나 아래로 흐르는 물에서 배우려 했다. 그런 삶이 말없이 연주하는 대자연의 오케스트라에서 위대한 진리의 깨침을 터득하는 자세가 아닌가. 희랍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우주 천체들이 일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며 운행한다

하여 모든 이법(理法)을 대자연의 질서 정연한 조화에서 찾았다. 이는 동양사상도 마찬가지로 거니와 하늘이나 자연을 스승으로 하여 그로부터 인간에 관한 이법까지도 알려하지 않았던가.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저 북한산에서 대자연의 오케스트라를 들으며 그 진리를 해득하고 깨우치는 철학자이고 싶다. 그러므로 시야를 넓혀 내가 배워야 할 최후의 위대한 스승은 바로 저 북한산의 오케스트라가 아닌가. 보현봉과 형제봉을 조석으로 바라보되 저 산의 오케스트라로부터 저절로 터져나오는 내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다 가련다.

그것이 염원하는 바 내 소원의 하나이다.

△ 필자소개

文學評論家, 文學博士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수필가

北漢山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自他가 公認

主要著書：“한국현대문학론”, “김동인 문학연구” 등 多數